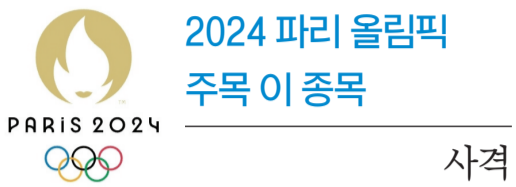


“어게인 2012 런던”... ‘금빛 총성’ 다시 울린다



2024 파리 올림픽
주목 이종목

사격

2024 파리 올림픽은 대한민국 사격 대표팀이 ‘사격 황제’ 진중오가 현역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치르는 대회다.

역대 하계 올림픽 금메달 4개(은메달 2개)로 우리나라가 올림픽 사격에서 탄 전체 금메달(7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진중오는 2004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 올림픽까지 한국 사격을 책임졌다.

이제 ‘포스트 진중오’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격은 파리 올림픽에서 8만 명의 ‘금빛 총성’을 울린다는 각오다.

1992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시상대 꼭대기에 섰던 한국 사격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이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땀고, 2020 도쿄 올림픽은 은메달 1개에 그쳤다.

사격 대표팀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2년 전 런던 올림픽의 기억을 되새기며, 파리에서 다시 전성기를 연다는 각오로 대회에 나선다.

사격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부터 열린 전통 있는 종목이다.

우리나라는 1956 멜버른 올림픽에 처음 참가했고, 1988 서울 대회에서 역대 올림픽 첫 사격 메달을 은메달로 장식한 뒤 총 17개(금7, 은9, 동1)의

‘산탄총 메달리스트’ 이보나 권총 윌드캡 세계신 김예지 ‘여고생 금’ 도전 반효진 등 금 1·은 2·동 3 ‘목표 상향’

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총 16명의 선수(여자 10, 남자 6명)가 출전하며, 지도자와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29명이 파리로 향한다.

장갑석 한국 사격 대표팀 감독은 당초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파리 올림픽 목표로 잡았다가 최근에는 동메달 개수를 2개 늘려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겠다고 밝혔다.

여자 25m 권총 세계랭킹 2위인 양지인(한국체대)과 5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윌드캡 이종목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김예지(임실군청·세계 4위)가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또한 한국 남자 속사권총 간판 송승호(IBK기업은행·세계 4위)와 여자 소총 50m 3자세 이은서(서산시청·세계 6위)도 언제든지 메달을 딸 수 있다.

대구체고 2학년 재학 중인 반효진(세계 16위)은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갑순처럼 ‘여고생 금메달’에 도전한다.

산탄총 종목에서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여자 더블 트랩)과 동메달(여자 트랩)을 딴



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국가대표 출정식에서 장갑석 감독과 선수, 코치진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던 이보나(부산시청·세계 50위)가 20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겨냥한다.

한국 사격 선수 가운데 유일한 ‘산탄총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이보나는 1981년생으로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단 최고령이다.

파리 올림픽 사격은 현지 날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샤토루 국립 사격 센터에서 벌어진다.

프랑스 중부에 자리한 샤토루는 파리에서 320km 떨어진 곳으로, 사격 선수들은 샤토루에 마련된 선수촌에 따로 입소한다.

사격에 걸린 금메달은 권총 5개, 소총 5개, 산탄총 5개 등 총 15개다.

사격은 한 손으로 잡고 쏘는 권총과 총열이 길어 두 손으로 잡아야 하는 소총,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산탄총 종목이 있다.

권총은 남·여 10m 공기권총과 남자 25m 속사권총, 여자 25m 권총까지 총 4개의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인 10m 혼성 경기에 금메달 1개가 걸렸다.

소총은 남·여 10m 공기권총과 남·여 50m 소총 3자세에 개인전 금메달 4개와 단체전인 10m 혼성

경기 금메달 1개가 나온다.

산탄총은 표적(클레이) 하나를 쏘서 맞는 트랩(남·여)과 서로를 바라보고 날아가는 표적 두 개를 맞는 스킵(남·여)로 나뉜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트랩 종목만 혼성 단체전을 치렀다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스킵 종목으로 대체됐다.

파리 올림픽 사격 종목에 출전하는 국가는 81개국이며, 선수는 총 340명(남·여 170명씩)으로 지난 대회보다 20명이 줄었다. /연합뉴스

“후배들 위해 산탄총 종목 알리겠다”

20년만에 메달 노리는 신안 출신 이보나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한국 사격 대표팀 이보나가 20년만의 산탄총 트랩 종목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한국 유일한 ‘산탄총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보나는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광주 농성초·광주 서광중·전남여고를 졸업했다.

1993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격을 시작해 총과 함께 한지 올해로 32년째인 이보나는 현재 42세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나이가 많다.

이보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여자 더블 트랩과 트랩에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다.

20년 만에 다시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이보나는 사격 산탄총 종목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보나는 “메달 목표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목을 위해서 더 생긴 것 같다. 산탄총 종목에 관심이 높아져서 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선수들이 그만두지 않고 선수 생활을 쫓할 수 있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동

‘마지막 올림픽’ 선전 다짐

“관심 높아지고 팀 많이 생겨 후배들 선수생활 계속 했으면”

으면 좋겠다”며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후배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다. 그게 큰 목표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탄총 종목에 더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이 국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바라봤으면 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격에 강하다는 인식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후배 선수들을 향한 애정과 대표 선수로서의 사명감을 드러냈다.

한국 사격에서는 이보나를 포함해 총 16명(여자 10, 남자 6명)의 선수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다.

사격 대표팀 장갑석 감독은 이보나의 장점을

‘집중력’으로 꼽고 있다.

장 감독은 “산탄총 종목은 접시에 노출되는 시간이 불과 1초 미만이다 보니,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된다. 특히 트랩은 접시의 비행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보나 선수는 기본기도 훌륭하고 집중력이 좋은 선수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는 만큼 목표도 뚜렷하다.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보나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에게도 본인에게 갖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휘말리지만 않으면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인천 선수촌에 입촌한 이보나는 19일 출국 전까지 파리올림픽을 위한 맹훈련에 돌입한다. 그는 이번 대회를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마지막이라는 것에 어찌 보면 좀 더 부담도 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더 죽어라 할 것 같다”며 각오를 밝힌 이보나는 “다른 생각을 최대한 줄이는



한국 사격 대표팀 이보나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트랩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대한사격연맹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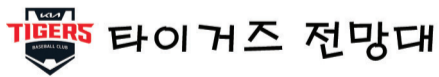
것이 목표다.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경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보나는 “사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다들 즐겼으면 좋겠고, 누군

가의 메달을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 같이 잘해서 정말 이 파리 올림픽이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파리 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꿀맛 휴식’ 끝났다...우승 행보 이어간다



후반기 시작부터 강렬하다. 1위 KIA 타이거즈가 2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우승 행보를 이어간다.

울스타 브레이크를 보낸 KBO가 9일 순위싸움을 재개한다. KIA는 잠실로 가 LG와 힘겨루기를 한 뒤 안방으로 돌아와 12일부터 SSG 랜더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쉽지 않은 상대들과의 만남이다. 2위 LG는 3.5경기 차 밖에 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올 시즌 ‘우승 후보’다. 우승이라는 마지막 결승선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인 만큼 매 경기 한국시리즈와 같은 승부가 예고된다.

일단 앞선 9번의 만남에서 KIA는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SSG와의 맞대결은 ‘열세 만회’가 숙제다. 1위 KIA가 전반기 상대전적에서 뒤진 상대는 롯데 자이언츠(3승 1무 7패)와 SSG, 두 팀이다.

올 시즌 3승 6패로 SSG에 약세를 보인 KIA는 앞선 맞대결에서도 1승 2패 무성 시리즈를 기록했다.

3.5게임차 LG와 ‘미리보는 KS’

방망이·마운드 감각 회복 관건

‘3승 6패’ SSG전 열세 만회 숙제

삼성과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연장 10회 5점을 폭발시키는 등 승리를 이끌었던 타선의 뒷심이 필요하다.

울스타 휴식이 타자들의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주말을 보낸 최형우와 소크라테스브리또의 성적도 관심사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최형우는 ‘베스트 12’에 선정되면서 울스타전에 다녀왔다.

휴식 대신 인턴형 강행군을 펼쳤지만 홈런포까지 쏘아 올리면서 ‘최고령 미스터 울스타’에 등극했다. 분위기를 살려 후반기 순위 싸움에도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초반 페이스가 더뎠던 소크라테스는 기본 좋게 전반기를 마감했다.

대구 원정길에서 두 경기 연속 3안타를 장식하는

등 앞선 삼성과의 시리즈에서 7개의 안타를 쏟아냈다. 울스타 휴식기를 보내면서 재충전 시간도 가졌다. 체력은 채웠지만 ‘감’이 걱정이다. 5일 만에 타석에 서는 소크라테스가 삼성전 타격감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운드의 키는 제임스 네일과 전상현이 쥐고 있다.

네일은 특급 변화구로 KBO리그에 정착하면서 볼넷 KIA의 에이스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름이 찾아오면서 네일의 패시움이 떨어졌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더하지 못하면서 7승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네일은 9일 선발로 나서 LG 케이시 켈리와 에이스 맞대결을 펼친다. 시리즈의 시작이자 후반기의 시작인 만큼 네일의 스타트가 중요하다.

마무리 정해영이 빠진 자리에서는 전상현의 역할이 막중하다.

기록 많은 전반기를 보냈던 전상현은 삼성전에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9회 2사 1·3루, 8회 2사 만루를 막으면서 승리와 세이브를 연달아 기록했던 전상현이 자신감으로 뭉툭 단속에 나서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아깝다 ‘톱10’...토프슨 우승

PGA 존 디어 클래식 12위

임성재가 뒷심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시즌 6번째 톱10 입상을 놓쳤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TPC 디어런(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총상금 8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4타를 때려냈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 8위 그룹에 딱 1타가 모자라 톱10 진입이 무산됐다.

임성재는 올해 들어 우승은 없지만 톱10에 5번이나 들었다. 특히 지난달 24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상승세를 탔던 터라 이번 대회 결과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2라운드에서 공동 4위까지 올랐다가 전날 3라운드에서 1타밖에 줄이지 못한 부진이 이어졌다. 공동 21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임성재는 1~5번 홀까지 5개를 연속 버디 행진을 보여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7, 8번 홀 연속 보기가 발목을 잡았다. 두 번 모두 그린을 놓친 뒤 다음 샷으로 핀에 붙이지 못했다.

임성재는 10, 11번 홀 연속 버디로 만회한 뒤 14번(파4)과 17번 홀(파5) 버디로 10위 이내 진입을 바라봤지만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벗어나 파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코프 김찬(미국)이 6언더파 65타를 쳐 임성재와 함께 공동 12위에 합류했다. 3언더파 68타를 친 김성현은 공동 34위(12언더파 272타)에 올랐다.

테이비스 토프슨(미국)은 PGA투어 데뷔 2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토프슨은 7언더파 64타를 몰아쳐 최종 합계 28언더파 256타로 정상에 올랐다.

토프슨은 2018년 마이클 김(미국)이 세웠던 대회 최소타 기록(257타)을 1타 앞서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2020년 조지아대 재학 중에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토프슨은 콘페리티어를 거쳐 지난해 PGA투어에 데뷔했다.

63번째 PGA투어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144만 달러를 받은 토프슨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디오피코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까지 풍성한 우승 선물을 챙겼다. /연합뉴스